

활력이 있고  
快適한  
漁港漁村  
建設

會 訓  
● ● ●  
創 奉 誠  
意 仕 實

# 漁港消息

발행경 편집인 孫井植 特 韓 國 漁 港 協 會  
인쇄인 金在克 서울특별시종로구원남동103번지  
ISSN 1227-7053 TEL. 3673-2851~4  
568-6651~2  
등록일: 1988년 2월 19일 FAX. 568-6653  
www.fipa.or.kr

(月刊) 第149號

THE FISHING PORT NEWS

2000年 5月 25日(木曜日) (1)

## 어항어촌 개발 등 생산기반시설 확충 경쟁력 제고와 어업인 생활향상 도모

이항규 장관, 대통령 업무보고서 밝혀

이항규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4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새천년 주요 개혁과제'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올해를 21세기 국가해양전략인 '해양한국 21'(Ocean Korea 21) 실천원년으로 삼아 적극적인 해양경영을 통하여 2010년까지 세계 5위의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항규 장관은 또 중국과의 수산관련 고위급 회담을 통해 '양자강문제'를 하루빨리 해결, 연말까지 중국과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수협 중앙회의 독립사업부제 실시와 함께 12개 부실조합의 통

폐합 등을 통해 경영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이 장관은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어업인 생활향상을 위해 바다 목장화 사업과 인공어초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한편, 109개 어항과 32개 권역의 어촌에 대한 개발사업을 실시하여 어업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기르는 어업의 육성과 어촌정주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중 어업협정을 조기체결, 어업인들의 피해를 줄이고,

수협 구조개혁을 보다 강도 높게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또 한·중 어업협정과 관련, 지난해 한·일 어업협정을 거울삼아 더 이상 어업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와 어업인 및 관련 전문가가 힘을 합쳐 실무협상이 조속히 타결되도록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수협의 개혁이 늦을수록 어업인들의 피해가 가중된다고 지적하고 수협을 보다 건전하고 투명하게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당초 약속한 구조조정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무인탐사정에 대한 국산화기 술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한

국과 캄차카반도간에 수산 및 해양자원에 관한 협력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전국 연안을 생태연안 등 5대 기능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권역별 연안개발방안과 거점해양관광도시지정, 다기능종합어항 및 선진형 거점어촌개발 등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이미 포함된 계속사업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어항이 어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이라는 사실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어항은 어선 및 어업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어업생산요소를 보급하는 기지이며, 생산된 수산물들이 소비지로 반출되는 유통의 출발점이자 가공기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경제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어항에 대한 기능이 점점 다변화하고 있다. 이는 소득증가와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어촌관광의 중심지로, 또는 도서나 벽지 어촌의 생산품 반출이나 생필품 반입의 중심지로 어항의 기능 강화 요구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다기능 어항의 필요성은 한마디로 시대적 요청이다. 이를 위한 현실적 대안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가지는 신규 지정어항을 지역특성에 맞는 종합기능어항으로 전환하는 방안이고, 다른 한가지는 기본시설이 완료 또는 완공단계에 있는 어항의 기능 및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다행히 지난 1997년 '어항 지정개발에 대한 조사연구'와 함께 1998년 17개 어항이 신규로 지정됐으며,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양수산부가 지정·개발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어 이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이와함께 지난 5월 14일 한국어항협회가 해양수산부 연구용역사업으로 '어항기능 및 이용활성화 계획연구'를 완료했다. 그 주요내용은 어항기능 활성화가 단순히 필요에 따라 시설확충을 하는 데 그치지거나 기본시설의 보완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어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기존 어항의 정비가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다.

특히 가장 중요한 연구 대목은 앞서 말한 어항의 기능 및 이용 활성화를 고려하여 기능강화가 시급하면서도 개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10개 어항을 선정,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기능 및 이용 활성화 방안이란 기본시설 이외에 어항구역 내에 설치되는 기능 및 문화복지·관광 휴게시설 등 모두를

포함하는 물론이다.

뿐만 아니라 어선의 안전수용 등 수산업 지원 외에 관광 교통 및 물류기지로서의 기능까지 포함한 항별 특화된 종합기능어항으로서의 발전은 물론 심지어 대상어항의 이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투자 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민자 유치 촉진방안과 필요시 일정부지의 민간매각 방안까지 제시했다.

한마디로 현재의 어항 활성화 목표에 만족하지 않고, 항별로 특화된 미래지향적 다기능 종합어항을 겨냥한 연구보고서인 셈이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10개 어항에 대한 연구결과 목표가 하루 빨리 달성될 수 있도록 어항개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이번 연구용역 사업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저 어항개발에 관한 모양 갖추기가 아니라면, 그리고 진정으로 선진어항어촌 실현을 갈망한다면 개발 착수 시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점을 재삼 강조하고 싶다.

왜냐하면 과거의 정권이 기회있을 때마다 쏟아놓은 잠미 빛 공약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이다. 그저 일과성으로 개발 약속을 한 뒤 그것으로 끝나 버렸다는 생각을 어업인들이 너무도 많이 하고 있음을 꼭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거창한 연구용역이 단순히 연구용역으로 끝나서는 안 되었고 어찌되었든 꼭 실현되어야만 한다는 뜻에서 재삼 강조하는 말이다.

아울러 이러한 연구용역 사업이 모든 어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것이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의 한 첫 단추가 되기 때문이다.

선진어항어촌 실현은 단순히 어업인들만의 혜택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이의 실현은 국가발전의 한 초석이 될 수 있다. 지금같이 각종 자국 자원의 보호 경향이 확산되고 있는 국제화 시대에는 더 말할 나위가 없음을 물론이다.

수많은 어항인과 어업인들의 기대가 하루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정착·개발에 적극 반영되어야

## 어항공사 20건 상반기로 앞당겨 집행

거제 외포 등 4개항 신규착수

해양수산부는 인천 덕적도 항을 비롯 당초 올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이었던 20건의 어항공사를 상반기안에 모두 조기 발주키로 했다.

최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항공사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하반기 집행예정인 인천 덕적도항을 비롯 여수 안도, 울산 정자 등 20개 어항 건설사업의 시설비 배정시기를 조정해 2분기안에 모두 앞당겨 발주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기획예산처와 이같은 내용의 어항공사 조기발주계획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지방청에 이들 20건 어항공사에 소요될 238억원의 사업비 배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항별로는 인천 덕적도항 등 9개항은 당초 3분기에서 상반기로 집행이 앞당겨지며 포함 대보항과 경북 영덕 구계항 등 11개항은 4분기 발주일정이 상반기중으로 각각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별로는 대부분의 공사가 소형 어선잡안 및 태풍피해를 위한 방파제와 물양장 건설이 주내용으로 이중 경남 거제 외포항과 경남 남해 미조항, 강원도 고성 대진항, 경북 영덕 구계 등 4개항의 어항건설사업은 올해부터 신규로 집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어항의 경우 대부분이 도서낙도에 위치해 시공여건이 열악한데 태풍과 폭풍시 재해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어 태풍기(7~8월) 이전에 주요 공종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시공중 피해발생이 우려돼 이처럼 발주를 앞당기기로 했다.

또 하반기에 발주할 경우

태풍기 이후에나 공사가 가능하고 동절기에 들어서면 해상기상 여건상 공사추진이 어려워 대량 이월사업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당초 어항건설사업의 경우 75%정도를 상반기에 발주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발주키로 했었다.

대규모 해양목장 건설추진

## 국립해양박물관 건립도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기반구축을 위해 하와이 공해상에 대규모 해양목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국가차원의 대단위 국립해양박물관건립을 추진하는 한편 최첨단 무인탐사정에 대한 국산화기술개발을 검토키로 했다.

최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하와이 공해상 대규모 해양목장건설, 국립해양박물관건립, 심해저무인탐사정에 대한 국산화기술개발 등을 주요 신규과제로 발굴,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현재 자체적으로 이들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조사중이며 해양수산개발원 등 전문용역기관에 의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용역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포함시켜 내년부터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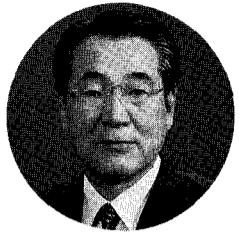
해양수산부는 우선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기반구축을 위해 하와이 공해상에 대규모 해양목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해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키 위해 국가차원의 대단위 국립 해양박물관을 건립키로 했다.

이와함께 최첨단 심해저

동

정

### IOPC FUND 사무국장과 피해보상에 대해 의견교환



李恒圭 해양수산부장관

▲이항규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4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새천년 주요 개혁과제'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올해를 21세기 국가해양전락인 '해양한국 21'(Ocean Korea 21) 실천 원년으로 삼아 적극적인 해양경영을 통하여 2010년까지 세계 5위의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15일에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 사무국장 Mr. Mans Jacobsson의 예방을 받고 국제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 현황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 우리나라의 어업 특성에 대한 관심과 이해 및 현재 진행중인 피해청구권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

▲손정식 한국어합협회장은 5월13일 경북 안동시 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행정사학회 세미나에 참석, 15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회의에 참석, 22일에는 롯데호텔에서 열린 밝은사회클럽 세미나에 참석, 23일에는 해군회관에서 열린 해양연맹 이사회에 참석, 24일에는 해양정책포럼에 참석.

▲박종식 수협중앙회장은 5월15일 은행연합회가 주관한 '2000년 임금 및 단체협약 공동교섭'을 위한 18개 노조와 은행장 간의 상견례를 위한 합동회의에 참석.

▲정덕용 주식회사삼전사 회장은 5월20일부터 4일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최고경영

자과정에서 주관한 중국 산업시찰에 참석.

▲최상욱 남화도건주식회사 회장은 5월1일 검찰청회의실에서 열린 범국민준법 국민결의대회에 참석, 3일에는 한국케이بلTV 광주방송 이사회에 참석, 18일에는 제2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 20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산시협의회 자문위원 초청 합동회의에 참석, 23일에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상임위원회에 참석.

▲고재철 금광기업주식회사

기념행사에 참석, 12일에는 나주시장을 방문하고 현안사항을 협의, 16일에는 2010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회의에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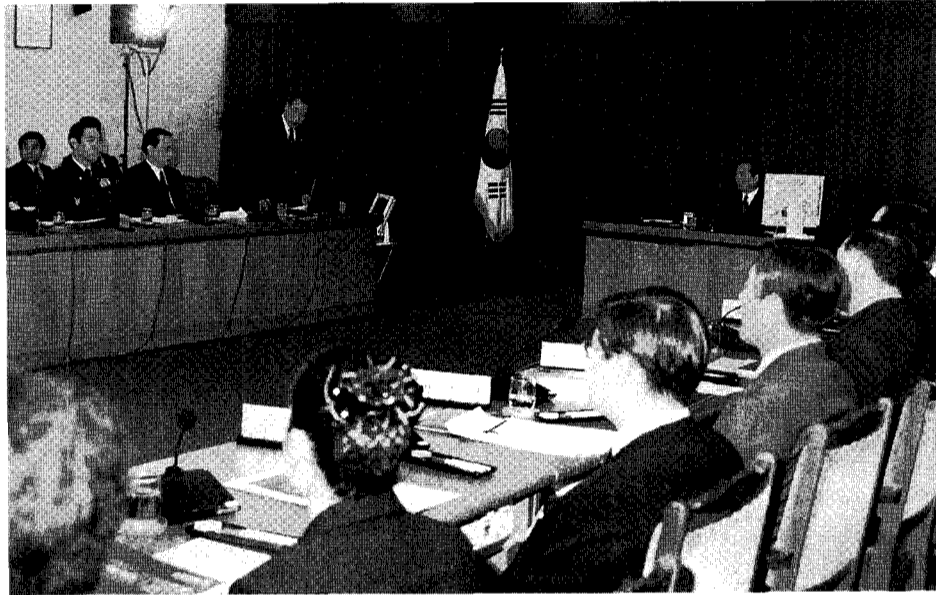
▲마형렬 남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5월9일 광주전남 기관단체장 조찬간담회에 참석, 16일에는 건설공제조합 소위원회회의에 참석, 17일에는 여수해양엑스포에 참석, 18일에는 제2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 25일에는 대한건설협회 이사회에 참석.

▲조남욱 삼부토건주식회사

기념행사에 참석, 12일에는 나주시장을 방문하고 현안사항을 협의, 16일에는 2010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회의에 참석.

▲마형렬 남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5월9일 광주전남 기관단체장 조찬간담회에 참석, 16일에는 건설공제조합 소위원회회의에 참석, 17일에는 여수해양엑스포에 참석, 18일에는 제2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 25일에는 대한건설협회 이사회에 참석.

▲조남욱 삼부토건주식회사



■ 김대중 대통령은 5월4일 이항규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한·중 어업협정과 관련, 어업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 실무협상이 조속히 타결되도록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회장 5월15일 사단법인 국창 임방울선생 기념문화재단 판소리리 개강식을 개최, 16일에는 검찰총장 초청만찬에 참석, 18일에는 제2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 19일에는 광주농고총동창회 이사회에 참석.

▲황금추 동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5월3일 신안군민의날

회장은 5월4일 선우회 주관으로 인천국제공항을 방문, 15일에는 한국지역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초선 국회의원 축하연에 참석, 16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주관으로 각 정당 총재를 예방, 19일에는 호주 총리 초청오찬에 참석.

▲정윤삼 대지종합건설주식

회사 회장은 5월10일 진도공사현장에 출장.

▲송재성 주식회사성호종합건설 회장은 5월12일 여수공사현장에 출장.

회사 회장은 5월10일 진도공사현장에 출장.

▲송재성 주식회사성호종합건설 회장은 5월12일 여수공사현장에 출장.

### 의비남부

<대단히 감사합니다>

- 단체
- ▲금광기업주식회사(회장 고재철)
- ▲주식회사세일종합기술공사(사장 이호순)
- ▲주식회사도화종합기술공사(사장 정조화)
- ▲주식회사건화엔지니어링(사장 황광웅)
- ▲주식회사동아기술공사(사장 김영삼)
- ▲주식회사세광종합기술단(회장 최석환)
- ▲주식회사삼안코퍼레이션(사장 김상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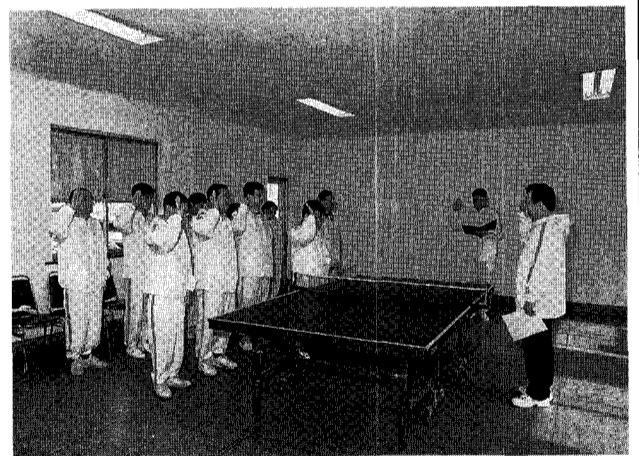
- ▲김승련씨(어업지도서관리사무소 소장)
- ▲김영남씨(주식회사동아기술공사 전무이사)
- ▲김영수씨(주식회사한아엔지니어링 이사)
- ▲김영환씨(전 한국어합협회 전무이사)
- ▲김의중씨(주식회사건화엔지니어링 전무이사)
- ▲김점곤씨(어업지도서관리사무소 무궁화8호 선장)
- ▲김현주씨(한국기계연구원 선임연구원)
- ▲김홍석씨(주식회사유신코퍼레이션 부장)
- ▲노승만씨(전 국립수산물검사소 분석과장)
- ▲류청로씨(부경대학교 교수)
- ▲문용근씨(동해지방해양수산청 총무과장)
- ▲민성규씨(대산지방해양수산청 총무과장)
- ▲박원길씨(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박의환씨(주식회사한아엔지니어링 차장)
- ▲박희열씨(선박안전기술원 원장)
- ▲배길중씨(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서기덕씨(전 대건중기 사장)

- ▲서성룡씨(동해지방해양수산청)
- ▲서승남씨(한국해양연구소 책임연구원)
- ▲손승렬씨(포항지방해양수산청 어항공과과장)
- ▲송상철씨(주식회사대한냉장물류프라자 부사장)
- ▲송예용씨(전 해양수산부 비상계획과장)
- ▲신석순씨(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유혁조씨(주식회사동일기술공사 부사장)
- ▲이남교씨(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이용숙씨(전 수협중앙회 상무)
- ▲이존양씨(전 해양수산부 어선관리과장)
- ▲이태일씨(마산지방해양수산청)
- ▲전충남씨(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조동영씨(동해지방해양수산청)
- ▲차상희씨(전 수우회 부회장)
- ▲최재학씨(해양수산부 함만건설과)
- ▲하태삼씨(어업지도서관리사무소 무궁화19호 선장)
- ▲황철민씨(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제 육 행사

▲한국어합협회는 지난 5월14일 양재동 신영길테니스코트에서 수산인 친선테니스대

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이희수 박광훈 전 수산청장을 비롯한 테니스 동호인이 참석, 박광훈·박혜신(한국어합협회) 조가 우승했다.



■ 한국어합협회는 5월20일 춘계체육행사로 탁구대회를 개최했다.

## 지자체공사 지역업체 우대

### 지역발전 기여도 반영방침

정부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육성을 위해 지자체 발주공사의 적격심사때 지역업체에게 일정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지자체의 입찰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일정액 이상의 계약과 공사에 대해 일상감사를 확대하고 환경기초시설 등 지자체 관리시설의 민간위탁을 촉진하

기 위해 다음달 중 보완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최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역실정에 맞는 지자체의 계약제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 지방계약법령을 정부계약제도와 차별화시키는 한편 지방의 중소기업 보호 육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찰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심사기준을 개정했다.

공사규모별 낙찰하한율은 1천억원 이상의 경우 현행과 같이 73%로 하고 △1천억원 미만~300억원 이상 78%(+5%) △300억원 미만~100억 이상 83%(+10%) △100억원 미만~50억원 이상 85.5%(+5%) △50억원 미만~10억원 이상 86.7%(+3.7%) △10억원 미만은 87.8%(+2.8%)로 결정됐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신규와 기존 중소기업체간의 수주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10억원 미만 소규모공사의 적격심사기준에서 시공실적을 완전 삭제, 입찰가격의 비중을 종전 80점에서 90점으로 확대하고 경영상태를 10점으로 축소했다.

대신 기존업체의 수주일감을 일정수준 보전키 위해 특

별신뢰도 항목을 신설, 경영상태가 불량하나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에게 일정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재경부는 또 1천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현행 적격

심사낙찰제 대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통과한 업체중 최저가를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최저낙찰제를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최저낙찰제 대상공사의 덤핑입찰을 막기위해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보증금률도 현행 계약금액의 30%를 40%로 상향 조정했다.

## 공사 낙찰률 상향조정

### 10억미만 '적심'서 시공실적 제외

공공공사의 낙찰률이 상향 조정됐다. 또 10억원 미만 소규모 시설공사는 시공실적을 평가항목에서 제외하고 경영상태만으로 평가하는 한편 기존 업체와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시공실적에

가산점을 부여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정부계약제도 개선안을 이같이 확정, 1천억원 이상 대형공사를 제외한 공공공사의 낙찰하한율을 종전보다 2.8~10% 상향 조정토록 한 적격

심사기준을 개정했다.

공사규모별 낙찰하한율은 1천억원 이상의 경우 현행과 같이 73%로 하고 △1천억원 미만~300억원 이상 78%(+5%) △300억원 미만~100억 이상 83%(+10%) △100억원 미만~50억원 이상 85.5%(+5%) △50억원 미만~10억원 이상 86.7%(+3.7%) △10억원 미만은 87.8%(+2.8%)로 결정됐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신규와 기존 중소기업체간의 수주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10억원 미만 소규모공사의 적격심사기준에서 시공실적을 완전 삭제, 입찰가격의 비중을 종전 80점에서 90점으로 확대하고 경영상태를 10점으로 축소했다.

대신 기존업체의 수주일감을 일정수준 보전키 위해 특

### 어항청소선 소식

6월중 어항청소 계획				어항청소선 이용안내	
선명	월일	지역(항)	선장	연락처	
어항 901호	6.12-17 6.26-7.1	위도, 안흥	최동립	(휴대폰) 011-247-5592 E-mail : 901@fipa.or.kr	
어항 902호	6.13-22	오란진	김성용	(휴대폰) 011-243-5590 E-mail : 902@fipa.or.kr	
어항 903호	6.12-17 6.26-29	녹동, 독암	조동식	(휴대폰) 011-230-5591 E-mail : 903@fipa.or.kr	
어항 904호	6.5-10 6.19-24	맥전포, 신수	박만성	(휴대폰) 011-232-5596 E-mail : 904@fipa.or.kr	
어항 905호	6.1-3 6.12-17 6.26-7.1	지세포, 광암, 능양, 삼덕, 통영	하용만	(휴대폰) 011-247-5593 E-mail : 905@fipa.or.kr	
어항 906호	6.1-3 6.12-17 6.26-30	포항연안, 갑포, 구룡포	김성훈	(휴대폰) 011-247-5594 E-mail : 906@fipa.or.kr	
어항 907호	6.12-17 6.19-24	임원, 장호, 남해, 사천	최일선	(휴대폰) 011-243-5597 E-mail : 907@fipa.or.kr	

바다환경보호 캠페인

깨끗이 가꾼 바다! 풍요로운 바다목장

몰래버린 낚줄이나 바다생명 단속한다

# 대진항 등 10개 어항 항별 특화된 활성화 방안 제시

## 어항협회 '어항기능 및 이용활성화계획 연구'

한국어항협회는 정부 연구용역사업인 '어항기능 및 이용활성화계획연구'를 준공했다.

해양수산부는 현재의 어항 개발은 기본시설 보완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어항의 기능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어항의 정비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감안, 69개 제1종 어항 중 기능강화가 시급하고 개발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되는 10개 어항에 대한 기능 및 이용활성화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로 지난해 5월 이 사업을 한국어항협회에 발주했다.

이에 따라 한국어항협회는 지난 1년동안 대상어항에 대한 실태와 개발여건분석, 관련계획의 검토, 발전잠재력 및 개발수요분석, 어항기능 및 이용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과 문제점 분석, 대상어항의 기능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기본시설과 함께 기능 및 기타시설의 개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어항정비의 효율화 방안

에 대해서 연구, 보고서를 제출했다.

어항기능 및 이용활성화방안은 기본시설 외에 어항구역 내에 설치되는 기능 및 문화·복지, 관광·휴게시설 등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으며, 계획의 목표시점은 현재에 국한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이며, 대상어항이 수행해야 할 기능과 어선의 안전수용 등 수산업지원 외에 관광·교통 및 물류기지로의 기능까지 포함, 항별로 특화된

종합기능어항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기본시설 외에 기능, 문화·복지, 관광·휴게시설 등 종합기능의 확보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규모와 합리적 배치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대상어항의 이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투자만으로는 부족한 점을 감안, 민자유치 촉진방안과 필요시 일정 부지의 민간매각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한국어항협회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안이 장기적으로 지향할 만한 가치가 있으며, 특히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 외에 지방자치단체나 수협 등 생산자 단체 또는 민간이 기능과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연구대상 10개 어항은 다음과 같다.

- 대진항(강원) 거진항(강원)
- 양포항(경북) 감포항(경북)
- 삼덕항(경남) 위미항(제주)
- 마량항(전남) 서량항(전남)
- 격포항(전북) 안흥항(충남)

# 도서지역 359개 초·중·고등학교와 해양수산 기업단체간 자매결연 추진

전국 359개 도서지역 초·중·고등학교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지원해 주는 후원자를 만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4일 김대중 대통령께 보고한 '새천년 주요 개혁과제'에서 도서지역 학교와 해양수산분야 업·단체간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도서지역 학생들의 정보화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6월 중 해양수산분야의 기업과 단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7월부터는 해양수산분야 이외의 희망기업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결연을 주선하

는 등 단계적인 사업추진을 통하여 올 하반기내에 1개 학교가 1개 이상의 기업이나 단체를 후원자로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행사를 통하여 참여단체들에게는 바다와 섬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를 갖고, 도서지역 청소년들은 정보화와 더불어 문화적 소양을 배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도서지역 초·중·고등학교의 명단과 주소를 해양수산기업과 단체에 제공하고, 기업이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 및 지원사항을 신청받아 학교와 연결시켜 주는 창구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어촌민속전시관 3곳 건립

# 3곳에 해양수산 과학관도

해양수산부는 어촌지역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어촌 민속전시관과 해양수산과학관을 각각 3개소씩 건립키로 했다.

어촌민속전시관의 경우 180억원을 들여 실내 야외전시장과 시청각실 야외놀이장을, 해양수산과학관은 300억원으로 수산물표본전시관 수산업발전전시관 어류수족관 영상관을 각각 건립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총 사업비중 50%를 국고로 지원할 방침인데 현재 전남

과 경남 제주 강원지역 어촌을 대상으로 건립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지난해 사업이 유보됐던 제주 해양수산과학관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재추진하고 속초 해양수산과학관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어업인소득증대를 목적으로 7개 지역에 도립수산물표본양장을 건설하고 어항종합개발계획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67개 권역에 대해 어항개발과 연계해 본격 추진키로 했다.

화물차량 9대를 수송할 수 있으며, 운항속력은 시속 16.5노트(29km상당거리)로서 땅끝에서 출항후 노화도를 경유하여 보길도까지는 45분만에 운항하게 된다. 동 선박의 취항으로 버스 등을 이용한 단체관광객 증가는 물론, 도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과 육지에서 반입되는 생필품의 원활한 수송으로 도서물류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추가 투입되는 땅끝에서보길까지호는 기존 운항선사인 유환회사 해광운수에서 15억원을 투입하여 신조한 220톤급 선박으로서 2000. 4월말에 건조되었다. 동 선박이 취항케되면 땅끝에서 보길도까지 3척이 1일 8왕복 이상 운항하고, 기존 완도 화흥포에서 보길도까지 2척이 1일 8왕복하는 등 모두 5척의 보길도항 여객선이 운항게 된다.

또한 올해 하계피서철 이전에 완도항에서 보길도까지 쾌속선도 운항할 예정으로 기존 차량운송여객선보다는 더욱 빠르고 쾌적한 해상도서관이 되도록 기존 연안해운선사인 진도운수 및 온 바다에서 각 1척씩 신규투입 추진 중에 있다.

변화될 경우 추가로 감척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근해어선을 줄여나가는 방식은 한·일 및 한·중 어업협정과 관련하여 직접 영향을 받는 어선들과 자원고갈에 미치는 영향이 큰 어선들을 우선적으로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어종별로 연간 어획할 수 있는 어패류의 양을 허용범위 내에서만 어획하는 방식의 '총허용어획량

제도'와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주변국과의 어업협정체결로 우리 연근해어업에 많은 변화가 있어 이에 알맞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편을 위해 '연근해어업의 종합적구조개선에 관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연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 연근해어업 구조 개선

해양수산부는 연근해 어업자원수에 적절한 어선세력을 유지함으로써 어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어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근해어업의 전면적인 개편을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변의 어업자원수준보다 어선세력이 많아 어패류를 과도하게 어획하고 있어, 지속적인 어업생산이 곤란하다는 전문연구기관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2004년까지 전체 어선세력의 26%인 115천톤(3,035척)을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되, 금후 한·중 어업협정체결 등 어업여건이

## 해양수산부장관배 국제요트대회 성료

해양수산부는 새천년 처음으로 맞이하는 제5회 바다의 날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해양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국민의 해양개척 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배 국제요트대회를 지난 5월5일 어린이날에 개최했다.

국제 요트대회는 해양수산부와 통영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의양범주연맹의 주관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러시아 등에서 요트 20여척과 선수 150여명이 참가했다.

이번에 개최된 국제요트대회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인 통

영시 소재 저도에서 출발하여 외부지도를 거쳐 통영항까지 돌아오는 16마일(약29.6km)코스로서 약 4시간이 소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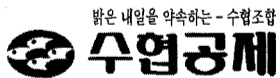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는 3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 요트대회를 처음 개최한 것으로 주로 해상운송 및 어로작업 등 산업활동 차원에서 이용되던 바다를 건전한 해양 레포츠의 장으로 확대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장르를 제공하였으며, 국민의 사회체육과 해양을 연계시킴으로써 해양레저활동의 활성화와 주변국가간에 친선을 도모하는 등 해양관광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관광명소 '보길도' 신규여객선 취항

완도지역 도서인 보길도는 조선시대의 유명한 문화기인 고산 윤선도 선생의 손길이 아직도 남아있는 도서로서 그 대표적인 '우우가'와 '어부사시사'를 탄생시킨 역사유적지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그러나 보길도는 도서인 관계로 완도지역의 화흥포항 또는 해남지역의 땅끝마을 갈두항에서 보길도 청별항까지 여객선을 이용하여야만 관광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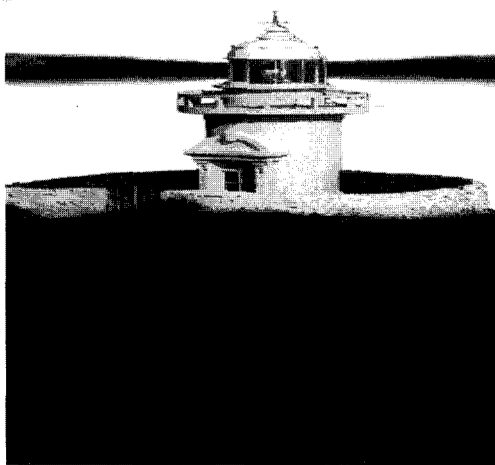
급증으로 현재 4척의 여객선이 보길도를 운항중이나 2000. 5.15부터 땅끝마을에서 노화도를 경유, 보길도를 운항하는 차량운송겸용여객선인 '땅끝에서보길까지' 호가 추가로 취항게 되어 앞으로 보길도 해상관광이 아주 편리해진다고 해양수산부 관계자가 말했다.

신규 취항선박인 땅끝에서보길까지호는 길이 45m, 너비 10m의 대형선박으로서 여객정원은 258명이고 적재능력은 승용차량기준 37대와 5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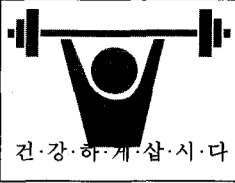


# 어려울 때, 가장 큰 빛을 밝혀드리겠습니다

## 안전한 보험, 든든한 보험 - 수협공제



수협의 안전지대로 돌아오십시오. 가장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 콜레스테롤

섬유질과의 식이요법은  
고혈압에 좋다

콜레스테롤은 일반적으로 동맥경화 고혈압의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콜레스테롤은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해가되지만 만약 그것이 없으면 곤란해지는 중요한 성분이라는 것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이라면 계란이나 유제품, 육류같은 것이 있는데 이들 식품은 모든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식생활에는 빼놓을 수 없다. 콜레스테롤을 기피하면 영양섭취의 불균형을 물론 식사의 즐거움도 없어질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비록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흡수율을 저하시키는 고구마 감자 등 섬유질 식품을 먹으면 된다.

섬유질 식품은 장을 소제해주는 음식이라 하여 영양 칼로리 보충과 함께 장의 움직임을 좋게 해서 변비를 없애준다. 그런데 식물성 섬유질은 장내에서 지방의 흡수를 방해하고 혈액 중의 콜레스테롤을 저하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섬유질식품은 감자류나 곡물외에 해초나 버섯류 같은 것도 있다. 그리고 때운 것에도 있는데 이런 식품에는 비타민이

나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므로 섬유식이 성인병 예방을 위해서는 딱 알맞은 음식이라 할 수 있다.

콜레스테롤이라 하더라도 혈관 벽에 붙어 있는 나쁜 것과 그것을 녹여주는 좋은 것이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콜레스테롤을 줄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늘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섬유질과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섞어서 먹으면 칼로리와 콜레스테롤의 균형 있는 영양을 섭취할 수 있다.

콜레스테롤을 섭취하지 않게 되면 단백질이 부족해서 전체 영양이 나빠지고 호르몬의 균형이 망가지며 지방산화도 나빠지게 된다. 콜레스테롤의 이러한 이면성을 이해해서 균형 있는 식생활을 해야 한다. 특히 중년기 이후에는 몸의 기본적인 저항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콜레스테롤에 신경쓰지 말고 고영양식을 하는 편이 현명한 것이다.

한 예를 들면 한국인의 평균보다 높은 콜레스테롤치를 하는 하와이의 한국계 사람의 평균수명이 본토 한국사람의 평균수명보다 길다고 한다.

무턱대고 콜레스테롤을 걱정할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 어·항·교·실 漁港工事施工管理의 첫걸음

[43]

## 第4章 地盤改良工

원리적분류

### 4.1.2 지반개량공법의 분류

어항공사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된 연약지반대책공법에는 표 4.1.1에 제시한 것들이 있다. 이중, 지반개량공법은 그 개량원리에 따라 ①치환, ②탈수, ③다짐, ④고결물의 혼주입, ⑤지수로 대별 할 수 있으나 이것을 더욱 세분하면 수십가지가 있다.

이와같이 지반개량공법의 종류는 많으나 대상으로하는 지반은 점성토계 지반이나 사질토계 지반이나에 따라 적용되는 공법이 한정된다. 그림 4.1.1은 어항공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반개량공법을 대상으로하는 지반의 토질에 따라 구분하고, 그 주된 공법의 원리적 분류를 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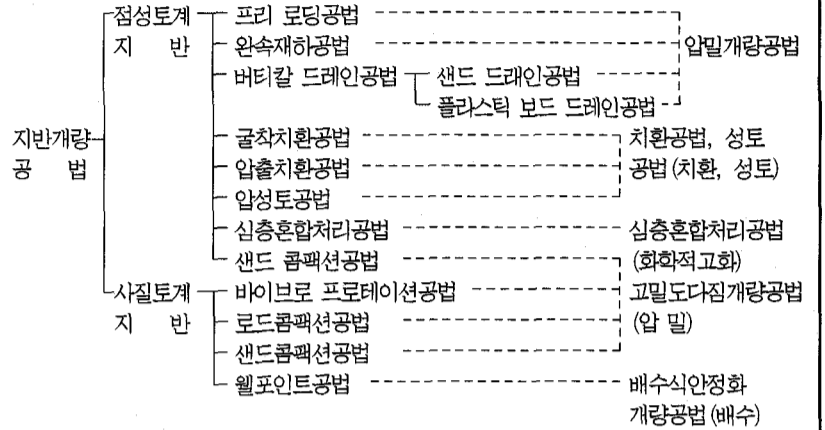


그림 4.1.1 지반개량공법의 종류

표 4.1.1 연약지반대책공법의 종류

대분류	개량원리	주된 공법
하중재분산공법	경량화	경량자재
	하중밸런스	압성토(counter balance) 공법
	하중분산	갈짚(brush wood laying) 심상공법 샌드매트(sand mat) 공법
지반개량공법	치환	굴착치환공법 강제치환공법
	탈수(압밀)	완속재시설공법 프리로딩(pre loading) 공법 샌드드레인(sand drain) 공법
	다짐	샌드콤팩션파일(sand compaction pile) 공법
	고결	석회·시멘트계 심층혼합처리공법
	지수	약액주입공법 지수널막벽공법(sheet wall)
지중구조물공법	굴격형성	널막벽지공법

### 4.1.3 지반개량공법공법의 선정

#### (1) 지반개량의 목적

지반개량의 목적은 지반조건을 개선하여 구조물을 건설할 때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지반조건 개선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전단특성의 개선(전단파괴의 방지, 전단변형의 방지, 토압의 경감 등)

지반의 전단파괴 및 토압 등에 대한 안정은 흙의 전단강도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전단특성을 개선하려면 어떤 수단을 써서 원지반의 전단강도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에 지반의 심하·변형을 대별하면 재하(굴착)된 지반토의 체적변화에 의거한 압축변화에 기인하는 것과 형상변화에 의거한 전단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점토지반에 있어서 압밀침하라 하며 후자는 즉시침하(탄성침하)와 측방류동(소성류동)에 기인한 침하로 나눌 수 있다(그림 4.1.2 참조).

측방류동과 같은 전단변형을 방지하려면 원지반의 전단강도 증가와 동시에 전단변형계수의 증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 금융피해 소비자 유형과 주의사항

### 연대보증은 항상 신중하게 결정해야

금융 분야에서 소비자들의 대표적인 불편 및 피해 사례는 연대보증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 등이 많고, 신용카드에서는 카드분실 및 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에 관한 것이 많다. 증권상 담 중에는 증권사와 관련하여 주식의 일임·임의 매매가 가장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 분야의 대표적인 피해사례와 주의사항 소개한다.

#### 〈사례 1〉 본인의 동의없이 연대보증인으로 올라가 채무 변제를 통보받은 경우

어느 날 정 모씨는 은행으로부터 주 채무자가 대출금 3,000만원을 상환하지 않고 있으니 연대보증 채무를 변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연대보증을 선 기억이 없어 해당 은행에 문의해보니 친구가 1년전 받은 3,000만원짜리 대출을 연장하면서 정 모씨의 동의도 받지 않고 재산세 과세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것이었다.

※ 처리 결과 및 주의사항  
청구인이 알아본 사실이 정확하다면 연대보증채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금융기관은 대출시 연대보증인의 동의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담당직원의 입회 하에

보증인 자필로 서명토록 하고 있다. 민법상 연대보증이란 주채무자에게 요구하는 변제요청을 연대보증인에게도 똑같이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즉 금융대출금을 갚을 것을 대출받은 차주에게 요구하든지, 연대보증인에게 요구하든지 그 선택권은 금융기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차주에게 먼저 상환을 요청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관행상 그렇게 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이 금융기관에게 “차주가 재산적 여력이 있으므로 그 재산에 대해서 먼저 채권을 확보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연대보증을 설 때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한다. 한편 주민등록증, 재산세납부증명서, 인감증명, 인감도장 등을 타인의 관리하에 두면 불시에 재산적 손해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사례 2〉 신용카드 분실로 인해 발생한 부정사용액 보상을 거절할 경우

박 모씨는 출근하여 지갑에 신용카드가 없어진 사실을 발견하였다. 박 모씨는 전날 밤까지

같이 음주한 직장동료 김씨가 박씨의 카드로 술값을 결제한 후 카드를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김씨를 찾았으나 김씨는 당일 출장을 나가 연일이 되지 않았다. 오후 늦게 연일이 닿아서 확인해보니 김씨는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았고, 당일 오후 5시가 넘어서 분실신고를 했다. 카드업체는 신고지연을 이유로 카드분실을 안 당일 9시 이후의 부정사용액에 대한 보상을 거절하였다.

※ 처리 결과 및 주의사항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신용카드를 도난 당하거나 분실한 것을 발견하고도 ‘15일까지는 보상이 된다’는 막연한 정보만 믿고 분실했음을 재확인할 때까지 분실신고를 미루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불충분한 보상에 그치는 사례가 많으므로 소비자들의 현명한 주의가 요구된다. 박 모씨도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까지 거치고 나서야 70%만 보상받을 수 있었다. 소비자들은 신용카드가 없어진 사실을 발견하면 밤중이라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카드사 전화번호를 모른다,

지금 전화해도 카드회사에 직원이 없을 것이다’ 등의 생각으로 신고를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카드 부정사용은 술집, 24시간 영업점 등 한밤중에도 얼마든지 이뤄질 수 있다.

#### 〈사례 3〉증권사 영업직원의 임의 주식매매로 발생한 피해

자영업자 서 모씨는 증권사 직원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주식을 매수·매도하는 식의 투자를 하고 있던 차에 한동안 거래를 중단한 상태였는데 증권사로부터 미수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사실을 알아보니 영업직원이 본인 계좌에서 허락도 없이 임의로 주식을 매매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소비자가 항의하니 영업직원은 원상회복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며칠 후 영업직원은 회사를 그만두고 잠적해버렸다. 증권사는 담당 직원이 행방불명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 처리 결과 및 주의사항  
임의매매는 고객의 동의가 없는데 증권사 직원이 임의로 고객의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을 말하며, 일임매매란 고객이 증권사에 매매를 아예 맡기는 것을

말한다. 증권거래법에는 증권회사의 임·직원은 고객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의 위탁재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투자일임업을 허가받지 않은 자가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하는 것을 영업으로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실거래 상에는 관련된 피해는 주식거래의 방법·제도·규칙 등을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증권사 직원의 말만 믿고, 전적으로 투자를 맡겨버리는 경향이 많아 일임매매의 피해를 입는 수가 많다. 또한 증권사 직원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임의매매를 해버려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만일 증권사 직원의 임의매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들은 곧바로 증권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 보상을 요구해야 하며, 해당직원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놓는다면 피해를 구제받기가 더욱 쉬울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증권사 직원들은 조만간 원상회복을 해주는 조건으로 차후의 주식 및 자금운영을 맡겨달라는 제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피해금액이 더 확대될 수도 있고, 책임소재를 가리기가 더욱 어려워지므로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생활정보

생활정보